

지난 주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무를 자이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기업 무를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제일 먼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1절) 그리고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 열명의 장로 앞에서 기업 무를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2절)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3~4절) 기업 무를 자는 그 내용을 듣고, 보아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무르리라”(4절) 이어서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무를 자에게 그가 기업을 무름으로 치루게 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5절)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기업을 무르는 데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나중에는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기업 무를 자는 계산하고, 기업 무를 권리를 포기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직접 밝히는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리지 못하겠노라”(4:6) 이 짧은 문장 속에 나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나는 무리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무를 자가 손사래치며 “나는 절대 그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물러서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을 벗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과 자기 소유에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의 이름은 아무개일까요? 아닙니다. ‘아무개’라는 히브리어는 펠로이 알모니로 그냥 어떤 한 사람, 흔히 아무개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 친척이기까지 한 둘이 서로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업 무를 권리를 포기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이신 성령께서는 자신의 친족을 살릴 기회를 포기해 버린 이 사람의 이름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적어 놓지 않은 것이 도리어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적혔다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기업 무를 자가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고 ‘신 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무를 자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외칩니다. 9~10절입니다. 보아스는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을 향해 이 일에 관하여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룻과 결혼하여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바보입니다. 보아스의 이 선택은 ‘신 벗은 아무개’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와 자기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허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 명의 장로들을 통해 그와 그의 자손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알려 주십니다. 11~12절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순종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적으로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6~8절)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계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고 하는 자들도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는 자는 바보입니다. 그런 바보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엘, Redeemer, 구속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일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전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 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바보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8절)

## 통독

### 이번 주 성경 통독

| 9/2(월)  | 9/3(화) | 9/4(수)    | 9/5(목) | 9/6(금)       | 9/7(토) | 9/8(주일) |
|---------|--------|-----------|--------|--------------|--------|---------|
| 렘 49-50 | 렘 51   | 렘 52, 애 1 | 애 2-3  | 애 4-5, 겔 1-2 | 겔 3-6  | 겔 7-10  |

## QT

### 이번 주 QT 말씀

| 9/2(월)   | 9/3(화)    | 9/4(수)   | 9/5(목)    | 9/6(금)   | 9/7(토)    | 9/8(주일)  |
|----------|-----------|----------|-----------|----------|-----------|----------|
| 느 2:1-10 | 느 2:11-20 | 느 3:1-14 | 느 3:15-32 | 느 4:1-14 | 느 4:15-23 | 느 5:1-13 |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예수님이 진정한 고엘이시며, 바보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각자의 고백으로 나누어 보세요.
3.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보아스와 가까운지, 아무개와 가까운지 돌아보세요.